

라운아띠,  
우린 다시 만나게 될꺼야.

베트남 호치민팀, 그 새로운 막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



베트남 호치민팀의 협력 기관 YSD를 소개합니다!



연합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해 청년들로 하여금 참여를 권장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2016년에 세워진 단체

“청년 중심 단체”로서 다른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단기,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라온아띠도 그 장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BUT, 우리에게는 사실 처음과 같이 아직도 YSD가 궁금한 “?”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대표 Danh에게 물어봤습니다.

**- YSD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니?**

**“우리는 많은 NGO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야.”**

**YSD** Youth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와 함께한 YSD의 멤버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쿠티네이터



우리의  
동반자

**Thu / 김태익**

**YSD의**  
수장



**Blair / 진주**

우리의  
교육 담당

우리의  
베트남어  
담당

우리의  
동반자



**Danh / 안**



**Khoa / 왁**



**LY / 원씨이**



**Ngoc / 보라**

베트남에서 5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매일 매일 안걸음 진보하는 청년  
세상에 단 하나뿐인 Brand



라온아띠를 하기 전까지는 '맞다/틀리다'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조금씩 '우리 모두 다름'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나' 가 아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수민'



나를 더 솔직하게 대할 줄 알게 된,  
타인을 그 자체로 바라보도록 노력할 줄 알게 된,  
돼지 띠 양소의입니다~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주고 싶은 사람.  
'오직 나 자신만을 지켜내는 사람' 이 아닌 '나 그대로의  
모습을 알고 드러내며, 다양함 속에서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을 배우게 된 사람.

“압축영 도시”  
호치민이라는 도시 안에 다양함이 공존하는 느낌

“오토바이 천국”  
인구 과밀



베트남 호치민, 이곳이 알고 싶다.



우리가 느낀 호치민은?

“한국인 듯 한국 아닌”

한편으로는 한국을 느낄 수 있지만, 또한 베트남의 특색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

# 우리는 왜 호치민으로 왔을까?

## 소희

"모든 나라에는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나는 이 지극히도 당연한 사실을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 그렇기에 호치민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의 나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였다.

'빈부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빈곤' 만을 생각할 때와는 다른 지점을 상기시켜주는데, 호치민은 이러한 빈부의 차이를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라온아띠가 호치민에 와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민

나는 "호치민으로 파견되었으니까 호치민으로 왔지" 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니 호치민은 한국만큼 빠르게 발전 하고 있는 곳으로 겉에서만 보면 높은 건물들과 수많은 외국 기업들로 가득 찬 도시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안에 빈부격차 및 다양한 사회문제를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현지 청년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해야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나아가기 위해 호치민으로 온 것 같다.

## 수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호치민은 이미 외국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 서울과도 꽤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겉모습들만 봤을 때 호치민에서 과연 어떠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살아본 결과, 호치민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문제가 존재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 중 거대도시라 할 수 있는 호치민, 결코 결핍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도시에서도 우리가 함께 성장 해야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존재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접근해보기 위해 호치민에 왔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왜 호치민으로 왔을까?

## 재열

대도시 호치민, 수 많은 현지인과 외국인 또 높고 낮은 건물들. 그리고 베트남 문화와 다양한 문화가 녹아 들어 에너지와 다양함이 흘러 넘치고 공존하는 도시. 즉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이 곳은 나 그리고 우리 라온아띠에게 '어떻게 들렀다가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라는 계속적인 고민이 던져지는 곳이다. 그래서 라온아띠인 나와 우리는 이 곳 베트남 호치민에 오게 되지 않았나 싶다.

'우리 라온아띠는 왜 호치민에 왔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선 '정답은 없고 다양하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덧붙여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해 본다면, '라온아띠가 향하는 곳은 어떠한 모습을 가진 도시이던 간에 그 속에 머무는 우리의 활발한 생각과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다.

## 상표

호치민에서 빈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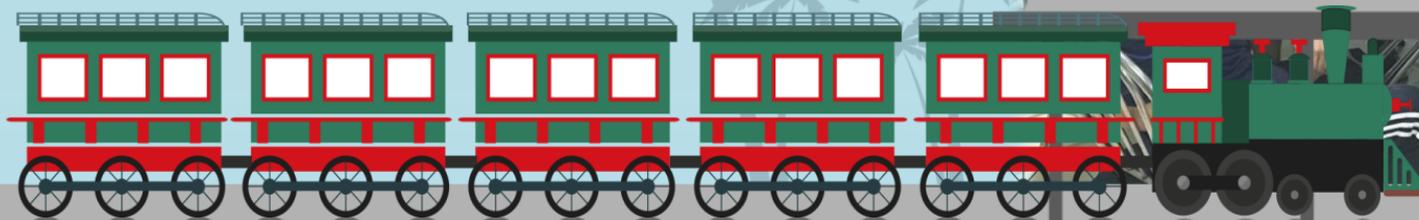
물론 가난하고 빈곤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시화 · 산업화에서 기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온아띠가 호치민으로 온 이유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호치민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Station 1.  
서툴지만 괜찮아  
'함께'였기에  
나아갈 수 있었어.



우리들의 활동





베트남의 사찰이자 고아원으로 알려진 곳으로 이곳에는 유아부터 고등학생  
까지 많은 연령대의 아이들과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유아부에서는 주로 선생님의 교육보조, 아이들의 활동참여, 식사보조,  
위생관리 등의 역할을 맡았고,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의  
걷기훈련, 산책, 식사보조, 활동참여 등의 역할을 하였다.

라온아띠,  
무엇을 느꼈니?

## 1 우리의 장기활동 5개월의 고민들.

### - 우리들의 역할

: 수많은 봉사자들, 정해지지 않은 역할. 어떻게 파고다에서 우리들의 활동을 만들어갈까?

### - 보육시설, 정부의 지원

: 아이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뇌성마비 친구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보여..

### - 볼룬투어리즘

: 마치 관광지를 구경하듯, 국적 불문, 많은 사람들이 잠깐 파고다를 들러서 생필품을 후원하고 사진만 찍고 가는 이 방식, 과연 옳은 걸까?



이 곳은 뇌성마비 아이들의 치료를 위한 기관으로, 우리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고 놀아주는지를 보며 관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주로 이 곳에서 아이들의 걷기 운동 및 놀이활동, 음악활동에 같이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라온아띠,  
무엇을 느꼈니?

## 2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미비

환경의 차이

: 똑같은 뇌성마비 환자라도  
가족이라는 환경이 주는 차이

민간시설인 이 곳, 정부의 지원은?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함께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

선생님들이 충분히 계신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 어린이 병원, GLASS BONE CENTER



호치민의 어린이 병원, 그리고 일명 '유리 뼈'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는 Glass bone 센터를 몇 차례 방문. 호치민 의대 클럽이 봉사활동을 갈 때 동행하여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라온아띠,  
무엇을 느꼈니?

## 4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미비

사설병원과 공립 병원의 차이. 한가하던 사설병원에 비해 공립 병원은 환자는 너무 많은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들이 복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시설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복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 빈곤퇴치캠페인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호치민 세 군데의 장소에서 빈곤퇴치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생각한 빈곤에 대한 동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라온아띠,  
무엇을 느꼈니?

### 3 베트남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빈부격차’

우리는 호치민 내의 빈부격차에 집중했지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도심과 외곽 지역의 빈부격차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 빈곤퇴치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귀로 들어보고 더 넓은 시각으로 이에 대해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중학생 아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우리가 KPOP, 태권도를 보여주고,  
서로 각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한국에 관심있는 학생 일부와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하며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QUANG VINH MUÔN NĂM



라온아띠,  
무엇을 느꼈니?

5 교류하며  
또다른 베트남을 만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자발적 활동의  
시작인 프로그램이었다.  
단순 활동만이 아닌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싶다는  
우리의 의견으로 생긴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 수에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학생들 덕분에 '문화 다양성' 속  
에서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교육환경을 보기위해 방문한 곳으로  
베트남 국제학교의 수업 방식 및 교육환경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우리가 이곳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라온아띠,  
무엇을 느꼈니?

## 6 교육 환경의 차이에 대한 생각

단순한 지식교육만이 아닌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  
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통한 유대감을 쌓는 과정들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차이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 Field trip



- 구찌터널
- SOS 빌리지
- 메콩델타 강

라온아띠,  
무엇을 느꼈니?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해  
이곳을 돌아보다

- 역사로 베트남 이해하기  
베트남 전쟁 그리고 당시의  
환경을 돌아보다.

- NGO를 통해 베트남 이해하기  
베트남의 NGO는?  
그리고 보육시설은?

- 자연환경으로 베트남 이해하기  
도심을 벗어나 베트남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다.



# Station2.

정답은 없어.  
모든 것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우리들의 생활



# 호치민 생활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 문화 차이를 느끼지 않았고  
다들 영어를 잘하기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오토바이가 생활화 되어있는 호치민은  
교통 및 매연이 심각하여 교통 부분에서는  
위험한 점이 많다.



정말 도시의 생활이었다.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는 도시이다. 생활면  
에서는 정말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빈곤문제, 빈부격차 등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더욱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도시이다.

# 호치민 생활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결코 한국과 다르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또래 친구들의 삶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우리들에게 익숙한 환경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베트남 마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이 생각보다 과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상이 안타까웠다.



대도시인 호치민이기에 라온아띠인 내가 많은 것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부딪혀 볼 수 있었기에 좋았다.

어렵고 민감해져야 하는 것들이 다수 있어, 인내하는 것과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

## 호치민 생활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한국과 비슷한 모습을 호치민에서 5개월을 보낸 우리. 생각해보면 다른 팀에 비해 충분히 느슨해질 수 있었고, 각자 가지고 간 목표에 있어서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서 더욱 느낀 것이 많았다 라고 평가한다. 호치민에 가기 전 나는 이 도시가 발전이 잘 되어있고, 꽤 부유한 도시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개발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과연 이러한 양상이 호치민의 자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또한 빈부격차 또한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높았고, 이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호치민은 잘사는 도시라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깨주었고, 발전이 잘 되었다고 빈곤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번 5개월은 나로써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처음 언급했던 것과 같이 처음 내가 이 도시로 오기 전 가졌던 목표들에 있어 해이해져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조금 더 초심을 잃지 않았더라면 더욱 뿌듯한 라온아띠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가진다.



# Station3.

그것은 결과가 아닌  
결국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



우리들의 프로젝트



3





## 파고다, 문제인식의 출발.

### - 후원의 방식

많은 봉사자들이 드나드는 파고다는 과자나 빵 같은 먹거리 위주로 후원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곳은 어린 아이들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뇌성마비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먹거리 위주의 후원이 저희에게는 문제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후원의 방식에 대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는 바로,

**KB HOPE GARDEN  
PROJECT**

# KB HOPE GARDEN PROJECT

01

## 스님과의 대화

우리가 느낀 문제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스님의 대찬성으로 진행 결정!



## 텃밭 구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농업전문가 상표님의 의견으로  
쿠바식 텃밭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02

03

## 재구상

우리의 텃밭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드신 스님,  
우리의 중간 평가기간 동안 미리 철골 기본 구조를  
설치해주셨다.. 쿠바식 텃밭이 아닌  
이 철골을 토대로 더 좋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철골 구조를 다시 논의 중, 본격적인 작업 시작!



# KB HOPE GARDEN PROJECT



04

## 철골 재구성 작업

씨앗들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더 많은 화분을 층마다  
놓게 할 수 있도록,  
철골 구조대를  
조정하고 틀을 만든  
우리들!

모두가 정말 땀방울  
흘리며 이루어진 작업  
우리 모두 고생했다!



05

## 필요한 자재 구입

삽, 흙, 씨앗, 판넬, 그물망 등  
텃밭 만들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YSD친구들이 알려준 가게로  
가서 하나씩 구매!



# KB HOPE GARDEN PROJECT



06

## 화분 정리 및 흙 담기 작업

파고다에 있는 통을 이용하여 모두 옮기고 흙을 화분 안에 담기!  
우리 노랑이들 힘내라 힘내!

07

## 씨앗 심기 활동

파고다의 요구대로 청경채와 상추를 심었어요!!  
엄선된 우리 개구장이들은 흙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어색한지 계속 손을 털었지만 씨앗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며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귀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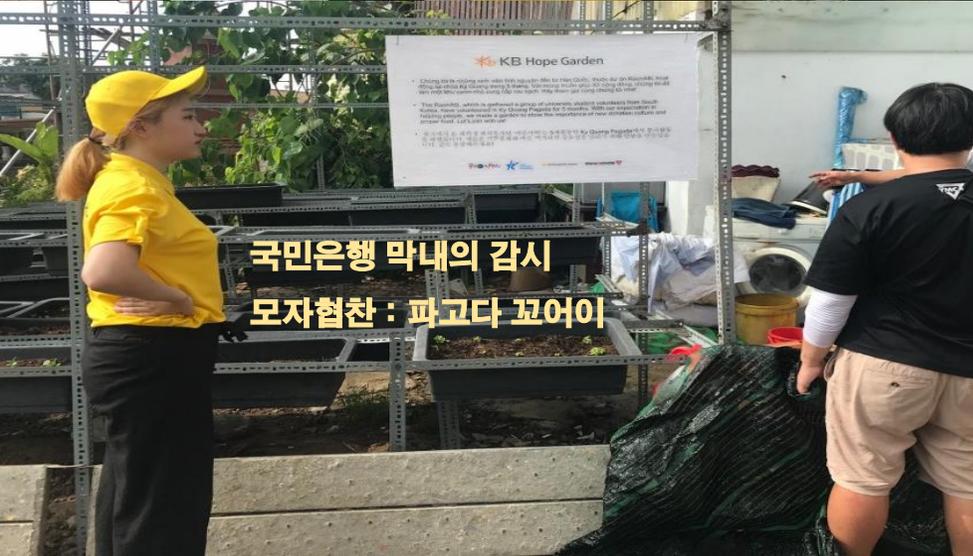
잠깐!

주로 유튜브를 보거나, 부서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유치부 아이들이 씨앗을 심는 활동을 통해 다른 경험을 해보길 원했던 우리들. 스님에게 요청해서 활동을 같이 했어요!



# KB HOPE GARDEN PROJECT

## 08 그물망 및 안내판 설치



국민은행 막내의 감시  
모자첨찬 : 파고다 꼬어이

파고다에 드나드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이러한 후원의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우리의 안내판!  
이쁘게 잘 나왔다 ^^



# KB HOPE GARDEN PROJECT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의 텃밭



스님도, 재열이도, 파고다 An~도  
모두가 물을 사랑이 넘칠 만큼 주는  
덕분에 현재 우리의 텃밭은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중입니다!



## 상표

Ky Quang Pagoda의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활동이다. 분명 KyQuang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위생, 의료, 안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었다.

5개월의 기간이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기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텃밭이었다. 물론 처음 계획했던 텃밭과는 정말로 너무 다른 모습이다. 처음 생각한 모습은 정말 간단하게 만들고 쉽게 만들면서 보기 좋은 텃밭이었다. 그러나 스님이 앵클을 구해오시고 이를 조립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사실 기대했던 모양보다 조금 별로인 모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함께 텃밭을 만들고 Ky Quang Pagoda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싶다. 기존의 기부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이며 ‘라온아띠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수민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했던 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방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 뿌듯했다.

## 재열

베트남에서 활동의 시작이 Ky Quang Pagoda이었고, 마지막도 Ky Quang Pagoda이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파고다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자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보다 나은 개선과 참신함에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보냈었다. 그 이후에는 팀원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며 문득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덧붙이기도 하고, 같이 고쳐나가는 시간을 보냈다. 본격 활동 단계에서는 보다 노력하고 신경 쓰는 활동의 시간을 보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면서 기관의 사람들과 또 우리 팀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교감이 더 많아지면서 ‘함께함’을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나는 과정 속에서 더 동기부여가 되고 활동적인 내가 되었다.

처음에 우리가 기획한 모양의 텃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변수를 통해 기관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기에 더 의미가 더 실리는 활동이 된 것 같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스님과 선생님들과 또 팀원들과 더 이야기를 하고 더 교감을 하게 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텃밭이 완성되고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는 지금의 결과를 떠나 서로가 교감하고 함께 웃게 되는 프로젝트가 되었기에 나는 잘 해낸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 방면으로 이 프로젝트는 참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든다.

## 소희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문제 인식에 부합했고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 파고다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고 5개월이 지나도 우리가 몰랐던 파고다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도 더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에 임하고, 함께 하는 가치를 더욱 느꼈던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과정이 고생이었지만, 아이들이 흙을 만질 때, 파고다 사람들이 함께 좋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그 모든 순간이 좋았다.



## 많이 넘어지고 넘어졌던 우리들의 이야기

- 호치민 생활 그리고 빈곤퇴치캠페인을 통해 우리들이 필요한 곳은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원하는 곳은 외곽지역의 소외되어 있는 장소임을 인지.

YSD와 이야기 끝에 기관 선정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존재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 안의 문제점들.  
프로젝트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들이 더욱 소중했던  
우리의 2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01

문제점

1. 베트남은 외국인의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특히 외곽지역일수록 허가 절차 복잡.  
병원 안 활동은 더욱 활동이 어려움.

02

문제점

1. 도심에서 11시간이 걸리는 외곽 지역으로 시간,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단기 활동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프로젝트로 알맞은 활동일까?
2. 우리가 기존에 가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교류도 없고 현지 상황도 모르는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03

문제점

1.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의 대립
2. 비용대비 효율성, 지속 가능성

외곽 지역  
병원 활동

Gia Lai 주  
내의 기관  
활동

사전조사를 위한  
blue dream club  
활동

04

- 이 곳은 외국인과의 교류가 없었던 지역, 그  
처음을 도전해보자!

- 주로 생필품 후원 위주로만 후원의  
손길이 닿는 이곳,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류' 프로그램을 도전해보자!

이를 통해 물품 위주의 후원이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 전달해보자!

이 과정의 문제는,

우리는 "협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

2달이 넘는 시간동안, Gia Lai의 기관과  
컨택하기 위해 노력했던 베트남 친구들의  
과정과 노력, 고민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우리 내에서 결정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논의했어요.

우리들의 프로젝트  
아쉽지만, 접어야 할 거 같아.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 중점적으로 함께 논의한 내용

- 후원이 마을의 요구인 것을 알고, 그것이 이제까지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후원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활동, 교류 활동에 초점을 맞추자.

그리하여 2박 3일간, Gia Lai Province 내의 두개의 학교에서 진행된 2번의 활동

01



## 활동의 순서

- 팀 소개
- Dream Activity
- Science Activity (2개 활동)
- 마무리 시간



전해들은 대로, 학교의 학생들 이외에도 동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프로그램 소식을 미리 듣고 주말에도 이렇게 모여주었다. 수줍어하는 아이도, 함께 손하트를 날려주는 아이들도 모두 사랑스러웠고 똑망한 눈빛들이 너무 귀여웠다.

슬리핑 버스를 타고 11시간을 걸러  
도착한 이 곳! 날씨 좋고~ 바람 좋고!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 Dream Activities



아이들에게 우리 팀을 소개하고,  
꿈 활동을 위한  
간략한 꿈과 소망에 대한 설명!



아이들이 종이에 꿈을 적도록 하고  
이를 'Dream bottle' 에 넣도록 하였다!



그 병 안에 있는 종이를 무작위로 뽑아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온 직업별 물품을 이용해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도 간접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Science Activities 1

눈높이에 맞추어 시선을 따라오게 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주는 용.  
종이를 접는 과정이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어려웠고, 준비해간 폴도  
부족해서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길었다..  
성공한 아이도 많지 않아, 우리들이 거의 접어줘야 했다.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 Science Activities 2



### - 화산폭발 실험 활동

베이킹 소다, 빨간색 용액,  
식초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병에 넣으면  
마법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과 함께 시범 보이기!



조를 나누어서 진행된 활동, 아이들이 직접 해보려는 모습이  
기특하다.



낮선 외국인, 낯선 활동으로  
반겨주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던 것보다 우리를  
잘 챙겨주던 학교 사람들!  
썸 감언~

Dream Bottle,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학교에 보관해주세요~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 - 서툴렀던 우리의 첫번째 활동

공책, 펜, 색연필로 후원을 최소화한 우리들.

베트남 친구들 의견대로 형편이 좋지 않은 50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그 외 아이들을 위해 여분의 지우개, 펜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던 방식인 공개적으로 선물이 50명의 아이들에게 주어졌다.

베트남 친구들은 이것이 학교의 방식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우리는 활동의 수정과 함께 이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

02

우리의 주특기, 아기상어 춤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기  
라운아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활동 내용, 이렇게 바꾸다.

- 교실 안 공간은 너무 협소하니 야외에서 진행하자!
- 꿈에 대한 설명, 더 간단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참여도를 더 높이기!
- 용 착시현상 활동은 너무 아이들에게 어려우니  
우리가 한국 사람만큼 우리가 이전에 해봤던 태권도를 보여주자!
- 그저 공책 2권을 받더라도,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선물을 나눠주자!  
남은 선물은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학교에 공동으로 전달하자.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 Dream Activities



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종이를 병에 담기,  
직업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체험해보기,  
마지막으로 꿈을 간직하면 좋겠다는 말로  
우리 활동의 진심을 전했다!



제 꿈은 농부입니다.  
모자가 찰떡이죠?



제 꿈은 예술가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제 꿈은 의사입니다.  
청진기에서 소리가  
들린다 들려!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 Science Activities



### - 화산폭발 실험 활동

적극적으로 먼저  
해보겠다며 손을 들던  
아이들!  
처음보다 능숙하게 5조 모두가  
아이들과 함께  
실험을 마쳤어요.



## Taekwondo Activities



### - 태권도 활동

재열 x 상표가  
처음 시범을 보일 때는  
따라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던 아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탄 소년단 노래에  
맞춰 힘차게 태!권!도!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우리들의 Photo time



비록 아이들에게 조그만 공책 2권과  
펜 1개를 선물해주더라도,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모습에 감사했고  
더 나은 2번째 활동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아이들의 꿈을 보관해주세요~



참 좋은 친구들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Feedback

## 상표

아쉬움이 많이 남은 활동이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발목을 잡은 활동이다. 장기적인 활동이나 후속 활동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활동이다. 호치민이라는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재미있었다.

물론 오고가는 버스가 편하지만은 않았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의 침대버스는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한다. 좁은 침대에 누워 장시간 가다보니 신체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있었다. 호치민보다 기온이 20도 가량 낮은 지역에서 활동하니 몸도 얼어서 추웠다. 활동의 의미를 찾지 못했더라면 대단히 힘들었을 활동이다.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고, 베트남의 새로운 모습을 보아서 너무 좋았다. 활동의 지속성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을 커버할 정도로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걸로 만족한다.

## 소희

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우리 5개월 간 활동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프로젝트로서의 의미, 지속가능성, 인식의 단계부터 진행과정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이 활동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민했던 것, 부딪혔던 것, 그리고 처음을 시도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5개월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한 활동들이 과연 그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후원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해봤을까.

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기에 나는 계속 고민할 것이다.

# Communicate with Gia Lai PROJECT Feedback

## 재열

이 프로젝트는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시작단계에서 많은 것이 담겨지고 나와 우리의 노력이 담겨졌었다. 그래서 더 생각을 말하고 프로젝트의 의미가 점점 더 두꺼워졌었다. 하지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우리였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생각을 더 했고 더 해야만 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하고 싶기도, 하고 싶지 않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결코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과 생각들이었기 때문이다. 결코 감정에 휘둘러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어려운 고민에 따른 나의 생각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팀의 진행 방향과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나의 고민이 되는 지점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감안을 해가면서 인지해가면서 활동을 진행해 나갔었다. 이후에도 물론 팀원과 함께하는 YSD친구들과의 생각과 상황에 따른 어려움 점이 쏟아졌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세워지면 프로젝트는 시작이 되었다. 나와 우리는 그곳에서 준비한 활동들을 했고, 나는 또 그곳의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고 웃음이 채워지는 시간들을 보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프로젝트를 했다. 분명히 했지만 어떠한 피드백과 결과물이 없어 평가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하지만 웃음과 서로의 감사의 한마디들이 있었기에 가득했기에 나는 잘 해낸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나와 우리는 이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멘 땅에 헤딩을 했고, 또 우리는 여러 사람과 상황에 부딪힐 수 있었기에 부딪힌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 수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 라온아띠 안에서 의견차이도 있었고 ysd기관과의 의견차이도 있었다. 모두가 조심스러웠고 활동 계획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에 너무나도 뿌듯했다.

## 수연

우리 팀은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팀원 각각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방향과 목적이 다 달랐고 그렇다보니 내리게 된 결정이었다. 사실 처음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하나나 제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낀 것도 많았고, 그만큼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우리 스스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의 손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외국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준비에 상당부분 뒤로 물러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불편했다. 코디네이터가 없었다면 과연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기는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처음 우리끼리 진행해보는 프로젝트였기에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현지 친구들과 트러블도 생겼었고, 우리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는 사실은 너무도 뿌듯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났던 여러 현지인분들과의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다. 나에게 이번 두 가지 프로젝트를 ‘안 될 것은 없다’가 딱 맞는 것 같다.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맞춰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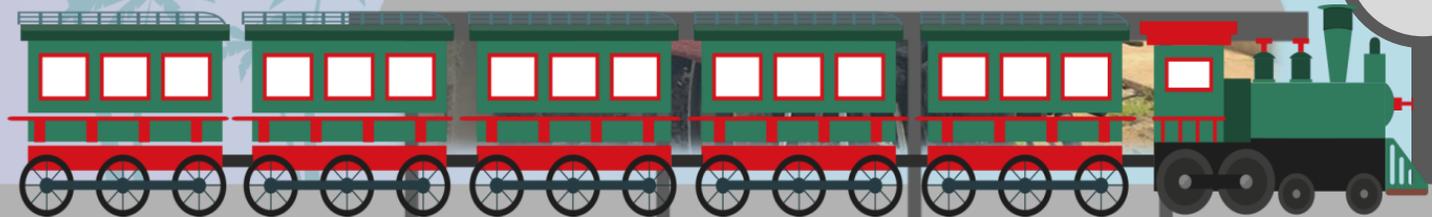
# Station4.

우리는 서로 달랐기에  
또다른 하나일 수 있었다.



질문하기

4



# 우리는 호스트 기관과 함께 성장하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소희

참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와 함께했던 친구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베트남 청년들이었고 많은 과정들을 함께 겪으면서 분명 '성장'이라면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호스트 기관과 함께 성장했다고 말하기에 우리의 상황은 복잡하다. 그 청년들은 계속 그 기관에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계속해서 선택해나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YSD 사람들은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함께했는지, 분명 첫 번째 라온아띠 프로그램과 그 다음의 라온아띠 활동은 달라지는 지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이 또한 성장이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호스트기관과 함께 성장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지 않는다는데 있어서는 아쉬운 지점이 크다.

## 수연

호스트 기관이라 하면 YSD.. 사실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확히 이 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함께한 적도 없었고, 직원들과 시간을 보낸 적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활동을 호스트기관과 함께 협력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호스트기관이 우리를 위해 채용해준 봉사자친구들과는 분명히 협력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라온아띠 X 봉사자의 프로그램이 된 느낌이다. 물론 호스트기관에서 채용해준 봉사자들이기에 이것 또한 협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문항이다~





## 우리는 호스트 기관과 함께 성장하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상표

솔직히 안했다고 생각한다. YSD 봉사자들과는 소통하고 협력했지만 기관과의 소통은 미비했다. 이러한 이유를 라온아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스트기관인 YSD의 내부적 문제점들로 인해 제대로 협력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호스트기관과의 협력이 라온아띠 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라서 협력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 재열

모두 성장하였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5개월간 함께하면서 이야기 하고 활동을 해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 또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라온아띠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기관이기에 성장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개월 과정 중에는 모두가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 확신은 없었지만, 지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함께 되돌아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 '우리는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자신 있게 든다.

### 수민

우리는 서로 성장하기에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Ysd기관도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처음이고 우리도 라온아띠가 처음이기에 우리는 서로 성장하기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이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잘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다름과 서로의 문화를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성장했다고 느낀다.



# 베트남은 과연 가난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소희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내가 살고 있는 수원도 그렇듯, 한 도시 안에서도 누구는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물론 절대적 지표로서 가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베트남은 상대적, 부분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였다. 하지만 베트남을 보고, 호치민을 보고 '이 나라는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한국을 말할 때, 이제는 '한국은 가난하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저 빈부격차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하듯이, 베트남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단지 이 현상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극명하게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 상표

베트남 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무작정 '베트남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호치민은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가난에 대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없이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서 가난하다는 생각을 했다. 호치민 생활이 익숙해 진 지금 '가난'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적어도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가난'이라는 범주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호치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도시화와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온아띠가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가난'이나 '빈곤'과 같은 주제로 활동을 생각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은 많다고 생각한다.



## 베트남은 과연 가난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수연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가난한 것 같긴 하다. 물론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서 잘사는 지역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부유한 모습이지만 내가 가난한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 생활 모습, 생각 등에서 알 수 있는 것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만 주면 청소년들에게도 술과 담배를 파는 것, 양보하면 더 손해보고 늦게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적인 위생에 있어 부족한 부분, 자국기업보다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양상 등? 내가 생각했을 때 가난은 이런 모습들이었다. 물론 그 속에서 여유 있고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좋았고 본받고 싶던 게 분명했지만.

### 재열

### 수민

난 이번에 5개월간 베트남 생활하면서 가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함부로 그들의 생활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의 눈에는 그들이 한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에 내가 베트남에 가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수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것은 현지 친구들이 아닌가 싶다. 우리를 위해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준 봉사자 친구들! 나는 분명 이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곳에 적응할 수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적이 달랐기에 다른 부분이 존재했고, 그랬기에 서로 나누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이 뜻깊었던 이유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친구들을 만났던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으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마음으로 타인도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5개월 베트남에 있으며 얻은 가장 값진 일이다.

### 상표

#### 단원 그리고 추억

가장 먼저 '라운아띠'를 통해 남은 것을 이야기 하자면 단원들과의 추억을 꼽고 싶다. 5개월간 지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슴에 남는 것은 단원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부한 이야기 이지만 함께 했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코 혼자라면 혼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빈곤에 대한 생각

라운아띠를 오기 전 나에게 빈곤이란 '배고픔'과 같이 추상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회를 바라보면서 빈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빈곤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지만 위대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빈곤이라는 범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재열

우리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고 받은 메시지, 영향력, 성장, 결과물 이런 것 모두 떠나 가장 소중하게 남는 것은 '함께한 사람과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호치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함께하면서 정말 즐겁고 힘들고 슬프고 웃었다. 다양한 많은 감정과 시간들로 가득했기에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일 것이고 함께했던 추억들 일 것이다.

## 소희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깨달은 것들, 반성하는 것들, 여러 감정들 모두 사람을 통해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얻은 '깨달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깨달음의 근본을 보니, 그것이 바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것이었고 내가 무엇을 하든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수민

5개월간 라온아띠를 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것은 바로 '사람' 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우리 팀인 소희 수연 상표 재열이다. 우리는 5개월간 치열하게 싸웠고 그만큼 행복하게 지냈다. 내가 5개월동안 라온아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것은 소희 수연 상표 재열이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나는 그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ysd기관의 blair 와 thu다.

이들은 우리 활동에 있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주었고 우리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며 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들을 잊을 수 없고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이만큼 나는 사람의 정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 행복한 5개월의 라온아띠



## 나는 과연 5개월간 좋은 친구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소희

나는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여기서도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었다. 먼저 말을 걸기 위해 노력했고 함께 옆에 걸으려고 했고 같이 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만들려고 했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도 나는 이것이 좋은 친구의 전부인 줄 알았다. 내가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것 말이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안 사실은 나의 의식적인 노력만이 있었을 뿐, 나는 베트남 친구들의 고민을 먼저 묻거나 혹은 일이 아닌 단지 친구로서 함께하려는 마음가짐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똑같은 경우를 놓고 볼 수는 없지만 팀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의 고민에 진정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먼저 다가가서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었다. 이 지점을 반성한 뒤에는 나의 마음을,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며 행동했지만 사실 이걸 깨달은 것이 너무 늦은 시기여서 5개월 동안 내가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 YSD 멤버들에게도 더 좋은 친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서운해도 더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 수연

활동 중반 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얻어 가고 싶은 마음에 나 혼자만의 성장을 중요시했었다. 따라서 현지사람들, 친구들의 활동보다는 내 위주의 활동들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고 서서히 함께 성장이라는 부분을 깨달아가며, 그제서야 주변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참 신기한 게 주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협력하니 나에 대해서도 전보다 더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다. 이곳에서 나의 행동, 표정 하나하나에 있어 민감성을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더욱 아쉽다. 100% 좋은 친구라고는 말 못하겠고.. 70% 좋은 친구였다고 말하자~~~



## 나는 과연 5개월간 좋은 친구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재열

나는 이곳 베트남 호치민에서 그냥 '친구'가 되고 싶었고 친구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랬기에 좀 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좀 더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내려 했었다.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노력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리고 친구들도 웃음으로 보낸 시간들이 많기에 적어도 '그냥 친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만난 친구들은 확실히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어 주었다. 나에게 힘이 되었고 힘을 주었다. 정말로 친구가 되려 온 내가 오히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정말 고마움을 전한다. 고맙고 사랑한다 친구들아.

### 상표

적어도 YSD봉사자에게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차별 없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완벽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베트남에서 만난 친구들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베트남에서 만난 봉사자친구들 대부분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만약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온다면, 이 친구들이 나에게 해 준 것처럼 나도 도와주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다.



## 나는 과연 5개월간 좋은 친구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 수민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는 썩 좋은 친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툭툭 거린 적도 많고 활동에 있어 거부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좋은 친구이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 걸기 위해 노력했고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그 전날 번역하고 저장해서 말을 건 적도 있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은 정말 많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아쉬움도 남는다. 그래도 그들과 친구라는 부분은 변함없다.

비록 좋은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우리 서로는 영원한 '친구'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로 남는 또 다른 방법은 오래오래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자주 연락하고 지낼 것이다! ㅎㅎㅎ

# 우리들의 마지막, 안녕 호치민



Ly 그리고 보라 안녕, 마지막 파티



국민은행 호치민 지점, 모두 골렌~(파이팅!)



아우스 메이트 Din, 단단 과의 마지막 추억



명절을 맞아 코디네이터 가족 집 방문!



파고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터이 어이~ 찌 어이~ 모두 신타만!



베트남 호치민팀의 5개월의 라온아띠

Chúng ta hãy gặp lại 다시 만나  
자.

